

 한국농어촌공사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 10. 25(화) 15:30	배포일시	2022. 10. 25(화) 15:30
담당부서	안전진단본부 진단조사부	책임자	부장 허범준(042-479-8420)
		담당자	차장 황일환(042-479-8431)

농어촌공사, 안전진단 현장교육으로 재난 선제대응

- 25일 충남 논산 탑정저수지에서 ‘안전진단 현장시연회’ 개최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철저한 안전진단 업무 실행을 위해 25일 충남 논산 탑정저수지에서 ‘저수지 안전진단 현장시연회’를 개최했다.

안전진단은 육안이나 간단한 기구로 점검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첨단 장비를 활용해 시설 내부의 누수나 붕괴 위험을 진단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시연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 시설관리자 백여 명이 참석해 △시설물의 누수·균열·침하 등 진단(토목조사, 기전조사) △콘크리트·철근의 내구성 측정 등 구조물 진단(재료조사) △제방의 누수 및 취약구간 진단(지질조사) 등을 참관했다.

특히 인력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한 ‘드론’ 조사, 지하매설물에 대한 ‘CCTV 탐사로봇’ 조사 등 첨단화된 진단기법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공사가 관리하는 3,400여 개 저수지 가운데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는 75%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7,000여 개 저수지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노후화된 저수지는 적기에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저수지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공사는 정밀하고 첨단화된 안전진단으로 노후화된 저수지의 시설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개보수를 진행함으로써 시설물의 재해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병호 사장은 “시설물 안전진단은 갈수록 대형화하고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만큼 꼼꼼하고 정밀한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공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천 농업기반과장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시설관리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